지난 30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앞 포장마차 거리가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뉴트로 열풍에 젊은층 몰리는데 광주공원 포차거리 영업 '딜레마'

1970년대 형성, 현재 19곳 영업
2년만에 영업 재개하며 불야성
외지인들 찾아오며 관광명소로

추억 서린 곳 합법화 제안에도
노점상 형평성 이유 양성화 안돼
무단 점용 등 행정당국은 고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가 '뉴트로 열풍'에 힘입어 젊은이들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1970년대부터 50여년 역사를 품은 이 거리는 중·장년층의 추억이 서린 장소다. 현재는 옛 것에서 새로움을 느끼는, '뉴트로'에 푹 빠진 젊은이들이 찾아와 새로운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2년여만에 문을 연 포장마차 거리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행정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도로 무단 점용,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미달 등 법적 문제의 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찾은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는 말 그대로 '불야성'이었다. 오후 8시 이미 16개의 포장마차는 빈좌석을 찾기가 힘들 정도 였다.

포장마차 위의 'T'자형 연통에서 고기 굽는 흰 연기가 피어 나오면서 인근 거리가 달달하고 구수한 냄새로 가득찼다.

포장마차를 찾는 젊은이들은 연신 '인증샷'을 찍으며 예전 복고풍의 분위기를 SNS에 올리기 바빴다.

서울에서 광주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러 온 박모(28)씨는 친구들과 택시를 타고 이곳을 찾게 됐다. 젊은 친구들이 자주 찾는 핫플레이스라는 소리에 또래 여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박씨는 택시에서 내리면서도 친구들과 오늘 입은 옷이 괜찮은지를 서로 물어보면서 젊은 또래 여성이 많은 포장마차를 찾아 들어섰다.

거리에 늘어선 포차다 보니 많지 않은 테이블 탓에 단골들은 사전에 포장마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기도 했다.

한 포차에서는 테이블 2개를 비워두고 예약자를 기다리기까지 했다. 빈 자리를 보고 연신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포장마차 주인은 예약석이라면서 돌려보내기를 반복했다.

몇몇은 포장마차의 인기 메뉴인 '닭 목살구이', '꼼장어' 등을 포장해 가기도 했다.

포장마차 주인은 영업 시간·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찾는 손님이 급증했고, 특히 젊은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인은 "포장마차가 넓은 야외에 자리잡고 있어 좁은 실내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적다는 점도 인기에 한몫했다"고 귀띔했다.

광주공원 포장마차 거리는 1970년대 광주천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노점상들을 광주공원 일대에 집합시킨 게 시초다. 초창기 25개 점포로 시작했으며 현재 19개 점포가 남았다.

지난 2020년 광주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 소통 광주'에는 역사와 추억이 서린 이 거리를 합법화하자는 제안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시는 다른 노점상과의 형평성,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합법화 불가 판단을 내렸다.

관련 민원도 꾸준히 있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멈췄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6건 내외씩 발생했으며, 올해도 이미 6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도로상 교통사고 위험, 통행 불편, 주차 불편 등 민원이 주를 이뤘다.

광주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생계 걸고 하는 곳이라 당장은 강제 퇴거 조치할 계획이 없다"며 "더구나 외지인들도 알음알음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됐다. 시민·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천 광주공원포차회 회장은 "상인들도 주차 문제, 사고 위험 등 지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포차가 합법화 돼 제도권 내에서 장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지역민과 행인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광주의 명물로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대 예체능계열 교수 2명 내사

광주경찰, 금품 수수·보조금 부적정 집행·교수 채용 비리 혐의

경찰이 조선대학교 예체능계열 교수 2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대학 입시생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보조금 부적정 집행, 교수 채용 비리 등으로 이 중 채용 비리 의혹의 경우 광주지법에서 이달 첫 재판이 열린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조선대학교 A교수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교수가 수년 전 이 대학 임용 전 학원 등에서 "대학 진학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잡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 전, 금품을 제공했다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제시한 입금 명세표 등을 통해 일부 송금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들은 6년여 전 A교수 요구를 받고 '작품값', '공연단 간부 인사 값' 등 명목으로 1인당 800만원씩을 줬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들은 예체능계열 입시에선 실기평가와 주요 콩쿠르(경연대회) 입상 실적, 공연단 활동 참가 등 스펙이 당락을 가르는 상황이어서 A교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며, 자신들이 파악한 바로는 돈을 건넸던 입시 준비생이 8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같은 과 B교수는 보조금 유용 의혹과 함께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

B교수는 광주 모 민간 예술단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민간예술단체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수령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자료가 포함돼 있는 등 석연찮은 정황이 수사당국에 포착됐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조선대는 올 초 1명의 교수를 신규 임용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평가 절차가 심사 당일 임의 변경되는 등 특정인 밀어주기가 의심스럽고, 해당 학과에서 영향력이 있는 B교수가 또다른 응시자에 대학 발전기금 명목으로 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와 관련 조선대 학생 등은 지난 30일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합격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있으나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총 3차로 진행된 임용 평가 절차에서 2차 평가 당일 심사 방식이 변경되는 등 공정하지 않았다"며 학교 당국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2명의 교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혐의나 수사 진행 결과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90대 노인 성폭행하고 "합의했다"…60대 남성 2심서 형량 늘어

같은 마을에 사는 90대 노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서 끝까지 "합의하고 했다"고 주장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치되지 않다며 강제 추행으로 인정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퇴정을 명하는 등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서 진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8시 20분께 9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집은 과거 구멍가게로 운영돼 미닫이 출입문이 있었으나 당시는 주거용으로만 쓰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집에 들이닥친 상황과 행동, 대응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추행을 당했다고만 진술했다. 되레 피고인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을 했다.

피해자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했고, 1심 재판부는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3년 6개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작은 시골에 사는 피해자가 소문이 퍼질 것을 염려해 피해를 축소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에서도 피고인과 분리되지 않아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신호 위반 장면 찍힌 것 같아서…" 공기총으로 CCTV 쏜 2명 집유

'차량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쏴 파손시킨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총을 쏘라고 A씨를 부추긴 B(5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2시 45분께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CCTV에 신호 위반 상황이 찍혔다고 여기고 무허가 공기총으로 쏴 411만원 상당의 CCTV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2년 총포법 위반죄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형호 기자 khh@

"생후 8개월 아이 학대" 고소장 광주 동구 아이돌보미 수사 착수

광주시 동구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접수됐다. 아이 부모는 가정에 설치한 CCTV 녹화영상에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바닥 매트 위에서 던지거나 마구 굴리는 듯한 모습 등이 촬영됐다며 A씨를 고소했다.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는 아이 부모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A씨를 아이돌봄지원센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와 합동 조사를 진행,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광주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4045	1	순천시 남산4길48, 3동 3층 306호[오천동, 한경아파트]48.06㎡[공유자김수진1/2지분]	아파트	27,000,000 27,0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제한
2021타경 54866	1	순천시 남제새길55, 6층 603호 [인제동,서광아파트] 84.51㎡	아파트	79,000,000 79,000,000	
2021타경 55708	1	순천시 서면 강청길82, 106동 3층 306호 [순천라송센트럴카운티] 84.8188㎡	아파트	274,000,000 274,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 4052	1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446 298㎡	대	39,962,920 39,962,92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구례군 토지면 섬진강대로 4611 단층69.12㎡ 제시외 단층다용도실 등65.1㎡	단독주택		
2021타경 4106	1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324-3 212㎡	대	107,173,000 107,173,0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324-4 413㎡	대		
		여수시 소라면 마전길 30-7 단층주택,부속사및창고105.1㎡ 제시외 축사 등 20.1㎡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4588	1	여수시 남면 심장리 926-6 1907㎡	전	133,490,000 133,4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53474	1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844-4 395㎡	전	318,739,000 318,739,0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매각제외.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동소 712 248㎡	대		
		동소 846-10 11㎡[물건번호1:공유자박은정 6/13지분]	대		
2021타경 54514	1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721-1 740㎡[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6,946,000 16,946,000	제시외수목매각제외
2021타경 54620	1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산101 36198㎡	임야	83,255,400 83,255,400	연고미상분묘소재
2021타경 54620	2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산101 36198㎡	임야	83,255,400 83,255,400	연고미상분묘소재
2021타경 54804	1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626-9 2097㎡[공유자김제곤1/3지분.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67,104,000 67,104,00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제한
	2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483-2 1919.6㎡[공유자김제곤1/3지분.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42,873,300 42,873,30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제한
2021타경 54927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8-34 1274.8㎡[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및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임]	대	203,968,000 203,968,000	
[자동차,중기]					
2020타경 57141	1	사용본거지:여수시 양지1길 5 309동 306호[미평동,선경아파트] 등록번호:82노1878 차명:포터II 연식:2018[시동상태불량가능성있음.제3자이영균에게보관]	자동차	12,950,000 12,950,000	보관:순천시해룡면복성리469-1,이수자동차매매상사
2021타경 54446	1	사용본거지:순천시 해룡면 송산4길16,205호 등록번호:55더0540 차명:카니발 연식:2016[제3자김수정에게보관]	자동차	17,000,000 17,000,000	보관:순천시서면압곡리568-1,순천자동차매매상사
[기타]					
2021타경 4229	1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7-1 469㎡	전	313,006,220 313,006,220	일괄매각
		여수시 율촌면 모래목길 99 사무소 1층259.85㎡ 2층60.18㎡	근린시설		
2021타경 53344	1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26-140 [㈜이맥스아이엔시공장제1동] 지층457.29㎡ 1층9,948.03㎡ 2층3,199.19㎡ 부속건물 1,2층각282.5㎡ 3층166.75㎡ 1층296.74㎡ 2,3층각281.6㎡ 1층136.68㎡ 2층254㎡ 1,2층각72㎡ 단층45㎡ 단층32.85㎡ 단층31.5㎡ 제시외 기계기구 9식[이동식컨테이너하우스2동및컨테이너박스2동매각제외]	공장	13,948,875,490 13,948,875,490	일괄매각.건물만매각.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인연제련설비외6식포함[일부소재불명].제시외기계기구[분석기]2식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2. 5. 16.[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5. 23.[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양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여,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